

코로나 시대 고단한 현실 담은 작품 많아

2021 광주일보 신춘문에 심사 완료
정지아·이병률·안수자 심사위원 참여
시 1715편·소설 213편 등 2123편 응모
실업·경제난·도피 등 사회부조리 다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적잖은 파장과 아울러 변화를 가져왔다. 문학에도 코로나의 자장은 만만치 않았다. 특정 사회 현상과 문학은 일정한 상관관계를 이룬다는 말은 이제 고전이 된 지 오래다.

2021 광주일보 신춘문에 심사가 완료됐다. 17일 본사 편집국 9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신춘문에 본심은 시 1715편, 소설 213편, 동화 195편 등 모두 2123편이 접수됐으며 예년 수준의 현황을 보였다.

올해 신춘문에는 코로나의 직간접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많이 투고됐다. 어두운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실업, 경제난, 죽음, 폭력 등 현실의 고단함과 피폐함, 부조리를 다룬 작품들이 많았다. 또한 자신만의 세계로 도피해 세계와 단절하려는 의도를 투영한 작품들도 적지 않았다.

한편으로 억압적 상황과는 별도로 여행, 이주를 모티브로 한 작품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작품 이면에는 오늘의 현실을 투사한 소재들이 주를 이루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투고자들의 면면도 다양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작품이 많이 응모된 점은 신춘문에 '열병'을 앓는 중장년이 많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투고자들의 거주지도 광주전남을 넘어 수도권, 충청, 영남 등 전국 곳곳에 분포할 만큼, 신춘문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올해부터는 원고지에 쓴 손글씨 원고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공고를 했지만 여전히 손글씨 원고를 보내는 문청들도 있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편 대신에 방문 접수를 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투고자 중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이도 있었고, 복역중인 문청도 있었다. 이들에게선 어떤 조건이나 제약에 굴하지 않고 문학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느껴졌다.



2021광주일보 신춘문예 심사가 17일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렸다. 안수자 동화작가, 소설가 겸 광주일보 문학담당 박성천 기자, 정지아 소설가, 이병률 시인.(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진수 기자 jeans@

소설 부문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외국에서의 경험, 이장 등 특수한 상황을 소재로 한 작품이 눈에 띄었다. 오늘의 현실과 연계된 사회 현상을 자신만의 언어로 그려내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밖의 유리된 현실과 맞물려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하려는 작품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정지아 소설가는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 맞게 된 이번 신춘문에는 묘하게도 중복된 소재나 주제를 찾기 힘들었다"며 "아마 격리된 공간과 시간이 개인의 내면으로의 침잠을 부추긴 듯하다"고 밝혔다.

시 부문은 '코로나'와 '마스크'를 모티브로 한 시들이 많았다. 오늘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본심을 맡은 이병률 시인은 "멀리 미국에서 보내온 작품, 교도소에서 부쳐온 편지 위 의 등 다양한 양상

의 작품과 시적인 열정은 아마도 추운 코로나 시대의 고통을 녹여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진혜진 시인은 "부조리하고 단절된 현대사회의 속성과 코로나로 인한 복잡한 층위의 의미 구조를 갖고 있는 작품이 많았다"면서도 "의미 구분에 혼란이 있는 작품을 외에도 시적 진술을 통해 내밀하게 그려낸 작품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동화 역시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 많았다. 가정 폭력, 실직을 다룬 작품도 있었고 판타지를 구현한 동화도 눈에 띄었다.

안수자 동화작가는 "동심을 담아내려는 열정은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상상력과 문학성, 동심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작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각 부문 당선작은 2021년 1월 1일자 광주일보 신년호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두의 희망을 응원합니다”

ACC 송년음악회, 19일 예술극장 무료공연...온라인 공개

올해로 6회째를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송년음악회가 19일 오후 7시 예술극장 극장 1 무대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위축된 공연예술계를 응원하기 위해 무료로 진행되며,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ACC 채널을 통해 공연 녹화본 영상도 공개된다.

뮤지컬 배우 이지훈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ACC 송년음악회는 국내 최정상 뮤지컬 배우들의 무대와 실력파 국악 그룹 공연, 오케스트라 창작곡 협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1부에선 '대동 춤' 공연의 창작곡 '벽과 벽 사이' 작품을 국립국악원 악장 및 수석 단원으로 구성된 실력파 악회 '금만고'와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선보인다. 연말에 어울리는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도 들려준다. 악회 '금만고'는 장르에 한계를 두지 않고 한국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주곡목과 실



이지훈

정선아

협적 시도를 이어가려는 국악 단체다.

2부는 국내 최정상 뮤지컬 배우의 뮤지컬 공연 음악을 한 무대에서 만나는 장이다. 뮤지컬과 방송을 넘나들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지훈과 실력파 뮤지컬 배우 정선아가 바사르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무대에 선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콜센터(1899-5566)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80년 5월 한 여인의 마지막 기억

놀이패 신명 '식사하세요!' 18~19일 ACC 어린이극장

놀이패 신명(대표 정찬일)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 '식사하세요!'(사신)를 무대에 올린다.

제41회 정기공연이기도 한 '식사하세요!'는 18일 오후 7시30분, 19일 오후 2시·5시 모두 세차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작품은 마지막 기억이 1980년 5월 2일 도청의 밤인 한 여인의 이야기다. 도청 진입 후 차려지지 못한 아침밥을 애도하는 공연이자, 트라우마로 인해 오랜 세월 봉인했던 80년 5월의 기억이 차마를 계기로 조금씩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 기억의 퍼즐을 완성해가는 이야기다.

차마에 걸려서야 비로소 기억을 되찾게 된 주인공의 삶을 현재의 모습과 당시의

기억을 교차시키며 다양한 양식으로 구현하고 환각과 망상의 세계를 소리와 이미지, 가면과 움직임 등으로 다채롭게 보여 주며 이야기를 풀어내간다.

작품 속에는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해 총을 들었거나 도청에서 취사 및 시체 수습 일을 한 이들의 증언,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풍비박산 난 가정사, 계엄군에게 당한 성폭력 등 이유는 달랐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 기억을 '봉인'한 채 살아온 이들의 삶이 담겨 있다.

광주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사업 지원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매회 30인 미만의 관객을 초청해 진행한다.

문의 062-527-729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신세계갤러리 2021년 1월19일까지...13명 작가 30여점 작품 전시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또 다른 광주'



하루.K 작 '행복한 미래'

소담한 눈이 내리는 밤 골목길 풍경은 정겹고 따스하다. 아재가게, 생선가게와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워낙지갈한 양동시장의 모습, 다닥 다닥 붙어 있는 집들이 정겨운 월산동 풍경. 지금은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철로.

내가 몰랐던 광주의 속살, 지금은 사라진 광주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2020년을 마무리하고 신년을 맞이하는 기획전 '또 다른 광주 전(2021년 1월19일까지)'을 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광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번 전시는 사진을 통해 광주를 기록하고, 회화와 영상작품으로 광주의 감성을 표현한

작가 13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획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사진, 회화, 영상, 설치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참여작가는 김영태·김자아·노여은·박신진·박일구·안희정·안나희·이세현·이아남·임남진·정승원·조정태·하루.K 등이다.

전시에서 나온 작품들은 다채롭다. 김영태 작가는 그림을 사랑한 광주의 식당을 포착한 사진 작품을 선보이며 이세현 작가는 광주의 역사가 오롯이 담긴 전일빌딩과 민주광장의 풍경을 담은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또 임남진 작가는 깊은 밤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검푸른 하늘과 보름달의 어우러짐을 시적인 화면으로 풀어내며 미디어 아티스트 이아남 작가는 무등산의 다양

한 모습을 역동적인 영상작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그밖에 정승원 작가는 화려한 색감과 유머스러운 장면이 눈길을 끄는 판화 작품 '양동시장'을, 하루.K 작가는 평화로운 광주의 모습을 모시 천에 수묵으로 작업한 '행복한 미래'를 전시 중이다.

코로나 19로 활동범위가 좁아지면서 내가 사는 도시 안에 머물며 그곳을 오히려 더 찾아보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번 전시는 익숙한 도시였던 광주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동시에 이제는 사라진 광주의 모습을 다시 추억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나는 기회이기도 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관광재단 비전선포식...관광산업 활성화 다짐

지난 7월 출범한 광주관광재단이 비전선포식을 갖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 오를 다졌다.

광주관광재단(대표이사 남성숙)은 18일 광주관광재단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천만관광객이 찾는 고품격 명품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목표와 비전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기 위해 마련

됐다.

식전공연으로 vr를 활용한 1인 드로잉 쇼를 통해 관광 인프라 및 비전을 선보이며,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 등의 축하메시지, 비전 선포 영상 등을 진행했다.

한편, 광주관광재단은 코로나 19로 인해 관광이 잠시 멈춘 시기를 기회로 활용해 온라인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강화에 대응하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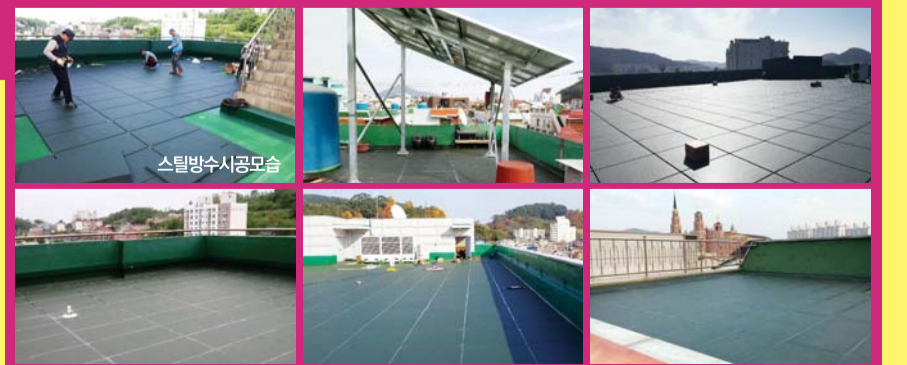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